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출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은 누군가가 겉모습이나 성적, 말투만 보고 여러분을 판단해서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쉽게 보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중요한 기준을 알려 주세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인사를 즐기고, 기도도 길게 하면서 거룩한 척했지만 실제 마음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심으로 가득했어요. 곁은 멋져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었죠. 예수님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장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성전 현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다가 한 가난한 과부를 보십니다. 많은 부자들은 여유 있는 돈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드렸어요. 누군가 보기엔 작은 현금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금액보다 마음, 겉모습보다 진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다해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멋지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큰 섬김을 했는지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어떤가?”입니다. 공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교회에서 섬길 때, 아주 작은 행동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있다. 작은 혼신도 귀하게 본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는 삶, 작아 보이지만 진심을 담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출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다같이

말씀봉독 누가복음 20:45~21:4절 다같이

설교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 설교자

말씀나눔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같이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 찬양 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작은 현금을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정성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마음을 드리게 해 주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왜 예수님은 많은 돈을 넣은 부자보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더 칭찬하셨을까요?
2. 나는 요즘 하나님께 어떤 '작은 마음'이라도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고 함께 나눠 보세요.